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관심사'

“바른미래당, 주도적으로 전면 개정 틀어막아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고용구조에서 직접고용으로” 민노총 전북본부, 산안법 개정안 통과 촉구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자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입사한지 2개월 밖에 안된 하청업체 계약직 24살 노동자가 홀로 4km에 이르는 석탄운송설비 야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년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

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태안 화력발전소의 위험의 외주화는 원래 정규직이 하던 업무를 구조 조정으로 외주화업체로 떠넘겨졌으며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외주업체의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1인 근무로 정해졌다. 민노총전북본부는 지난 24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일명 김용균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노총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업안전법 개정 논의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주도적으로 전면 개정을 틀어막고 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 개정마저 방치하고 있는 국회도 공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용균씨가 숨진 지 8일 만에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다시 다루겠다고 법안심사 회의를 열었다. 회의 자리에서 여야는 서로가 법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전해진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이후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2년 7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국회가 임무를 방기해 재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

판이 쏟아진 뒤에야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 사이 구의역 김군의 죽음이 태안화력발전소 등 여러 비정규직 현장에서 반복된 것이다. 민노총관계자는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다”며 “2년 전 구의역 사고 때도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고용구조에서 직접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산안법 개정안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책임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화학물질 독성 정보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송효철 기자



지난 2006년 전주시 글로벌 해외연수생 선발 1기 수혜자로, 올해 세계 4대 회계법인으로 손꼽히는 PwC(Pricewaterhouse Coopers)에서 근무하는 조창규씨가 전주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후배들을 위해 써주세요’

제1기 전주 글로벌 해외연수생 조창규씨 전주인재육성재단에 인재육성 장학기금 후원

전주인재육성재단(공동이사장 김승수 전주시장·윤여용 제일건설 대표)의 후원을 받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 한 청년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후원했다. 사원의 주인공은 지난 2006년 전주시 글로벌 해외연수생 선발 1기 수혜자로, 올해 세계 4대 회계법인으로 손꼽히는 PwC(Pricewaterhouse Coopers)에서 근무하는 조창규 씨(27)다. 조 씨는 지난 24일 지역인재 양성에 써 달라며 3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주인재육성재단에 기탁했다. 조 씨는 지난 2006년 전주시가 처음 시행한 글로벌 해외연수생으로 선발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섬머빌 유니온 하이스쿨(Summerville Union High School)의 10학년 과정에 교환학생으로 1년간 공부했다. 이후, 그는 2010년 전주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 입학해 재무경제학과 수학을 복수전공했으며, 지난해 11월 미국 계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난 9월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

나인 PwC에 취직해 근무하고 있다. 앞서, 그는 2006년 ‘글로벌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1년간 유학할 중·고교생과 대학생 84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8억25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의 미래인재들에게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조창규 씨는 이날 “2006년 전주시 글로벌 해외연수생 선발 1기 첫 수혜자로서 지난 9월 첫 직장에 취직한 후 지역인재육성기금 조성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으로 재단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윤여용 재단 이사장은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학업에 더욱 정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과 나라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를 이끌어 갈 글로벌 우수인재가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들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크리스마스 산타 감사행사를 개최했다.

우리는 산타클로스... 한옥마을 주민·상인 ‘한마음’

크리스마스 맞아 여행객 감사 행사 개최

전주한옥마을을 주민과 상인들이 여행객들의 산타클로스가 됐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들이 지난 22일부터 24일 까지 3일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크리스마스 산타 감사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여행객이 찾아온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주민과 상인들이 마련한 행사로, 이들은, 한옥마을을 사랑해준 여행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산타분장을 하고 심시일반 기부한 선물을 여행객에게 전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산타 감사행사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옥마을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함께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주민·상인은 물론 한옥마을 해설사와 김승수 전주시장도 산타분장을 하고 여행객들을 맞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4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풍납동 주민들이 감사의 의미로 떡과 전통차를 나눠주는 등 따뜻한 성탄절 이벤트도 펼쳐졌다. 이와 관련, 전주한옥마을은 지난 2016년 빅데이터 분석결과 사상 처음으로 1000만 여행객을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1100만명이 다녀가는 등 여행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며 국가대표 관광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올해도 111년만의 최악의 폭염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 경제여건 등 관광경제가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 예측에 따르면 1000만 여행객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전주한옥마을 상인은 “꾸준히 한옥마을을 찾아주는 여행객들의 관심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올 크리스마스에는

주민과 상인들이 여행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산타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추억을 만든 한 여행객은 “이번 주민산타 감사행사를 보면서 전주한옥마을이 사계절 인기여행지로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이유를 알겠다”면서 “전주에서,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따뜻한 정을 듬뿍 느끼고 간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관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한옥마을은 주민과 상인들의 소통을 기반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자생력으로 힘껏 도약해나가는 여행지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주한옥마을이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글로벌 문화여행지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상인, 행정이 한뜻이 되어 주민중심의 문화를 만들고, 여행객들이 감동할 수 있는 여행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편의점 종업원 폭행 40대 남성 구속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형법상 상해 혐의로 A모씨(45)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45)는 지난 19일 오전 3시경 익산시 모현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모씨(36)의 머리를 잡고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해당 편의점에서 복권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모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과 무방비 상태 종업원을 폭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기자

휴가 나온 육군 현역병 경찰 폭행 끝에 붙잡혀

휴가를 나온 육군 현역병이 폭행 시비를 말리는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모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술집 앞에서 B경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사가 A모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A모씨를 제압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A모씨를 헌병대에 인계할 방침이다. /강석훈 기자

의류매장 현금 절도범 검거

의류매장에서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48)는 지난 11월 29일 오후 7시 40분경 익산시 B로 한 의류매장에서 업무인 피해자 C모씨(46)가 자리를 비운 틈에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절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여 지난 23일 오전 11시경 피의자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서우엠에스, 10억원 기술투자 유치 성공

전주정보문화진흥원과 협약 체결

전북지역 스마트팜 전문 업체인 (주)서우엠에스(대표 박정란)가 10억원의 기술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 이하 진흥원)은 중국 허베이성 가오바이오펜에서 진흥원과 중국 농산품유통경제진흥회(회장 우배순)가 공동 주최한 투자유치행사인 ‘2018 한중 하이테크 프로그램 상담회’에서 (주)서우엠에스가 중국 석가장고신 구운태 주식투자펀드센터(유)로부터

10억원 규모의 기술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ICT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인 ‘내아시아 마케팅’을 통해 일궈낸 성과로 지난 12월 싱가포르 랜드힐 캐피탈사(社)와 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 성과다. (주)서우엠에스는 창업 초기부터 진흥원 지원사업의 보육을 받으며 성장해온 기업으로 이번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해외에 신기술 제품으로 연은 투자비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

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 함께 참가한 참여기업 4개 업체에 대해 총 15개 중 국기업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3개의 MOU를 체결하는 등 향후 투자협력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경쟁이 치열한 국내시장보다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권 시장을 탐색하는 등 진흥원이 가진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얻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우수업체를 발굴 및 지원해 성공적인 해외진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청년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

시, 희망도시 정책위원회 개최 소통·고용 등 추진방향 논의

전주시가 청년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24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청년이 희망을 갖고 전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18년 제2차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창립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장과 시의원, 교수, 청년 등 각계각층의 인사 20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해 조정·협력하고 있다. 참석 위원들은 이날 소득과 부채, 주거, 결혼 등 복합적인 청년문제에 상처 받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통합적 방향성을 가진 전주형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시는 그간 진행해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왔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소통·거버넌스 △고용·일자리 △복지 △교육·사회·문화의 4개 영역별 주요 과제들을 검토하고, 영역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 방안 △창립인큐베이팅 기반에 대한 강화 △창업원표 프로젝트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센터와 온라인플랫폼 구축과 같은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전주시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월까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관계부서 회의, 전주시장과 청년희망단과의 공유회, 시의원 간담회, 청년포럼 등을 차례로 추진, 여러 전문가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한 바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지난 24일 ‘2018년 제2차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